

IJŽS Vol 2.2

$$A - A = a$$

이성민

프로이트는 「충동들과 그것들의 운명」이라는 1915년 논문에서 충동을 네 가지 요소로 분해한다. 그 요소 가운데 하나가 *Object*, 즉 대상이다. 프로이트는 충동의 대상과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그것의 가변성을 지적한다.

충동의 대상은 충동이 그 목표에 도달하는 데 도움을 주거나 수단이 되는 것을 일컫는다. 충동과 관련된 것 가운데 가장 변수가 많은 이 대상은 애초부터 충동과 결부된 것은 아니며, 다만 충동의 만족 달성에 아주 적합하다는 이유로 충동에 지정된 것이다.¹⁾

이 말은 충동 본연의 대상 같은 것은 없다는 말처럼도 들린다. 그리고 그렇다면 충동의 대상과 관련해서는 그것 자체의 유무 여부에 결려 있는 문제가 없지 않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충동의 대상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 보면 없는 것도 같다. 홍준기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남자의 성, 여자의 성』을 바로 이 문제에서 시작하고 있다(이 책의 제1장에서 홍준기는 충동과 욕망의 문제에 결려 있는 많은 난제들을 과감하게 이론적으로 돌파하고 있다. 나는 여기서 이와 같은 선구적 성취를 이용할 것이다).

충동에 관한 프로이트의 논의를 논평·재해석하면서 라캉이 특히 주목하는 것은 충동 대상의 가변성이다. 충동(*Trieb*)은 본능(*Instinkt*)과 달리 (생물학적) 목적성을 갖지 않으므로 특정한 대상이 아니라 다양한 대상에서 같은 만족을 얻을 수 있으며, 심지어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충족에 도달할 수 있다.²⁾

이것은 문제의 시작이다. 많은 것들이 바로 여기서 시작된다. 이 글을 이미 읽어본 사람이라면, 그것이 또한 어떤 논쟁의 시작임을, 어떤 비판의 시작임을 볼 것이다. 홍준기는 여기서 들뢰즈나 서동욱이 충동을 이해하는 방식을 겨냥하고 있다. 그런데 그의 비판/이론적 요점은, 충동에는 자가성애적 기관쾌락으로 환원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이다.

라캉이 “불안에는 대상이 없지 않다”라고 말한 것처럼, 홍준기는 “충동에는 대상이 없지 않다”라고 말한다.³⁾ 여기서 문제가 일단락되는 것이라면, 충동 대상의 가변성에서 문제가 시작되고 있다. 여기서 시작되고 있는 문제의 성격을 좀더 유리한 지점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나는 콤플렉을 길게 인용하려고 한다.

프로이트 자신을 포함하는 오랜 전통에 따르면, 불안은 두려움과는 달리 그 어떤 대상도 가지지 않는다는 근거에서 두려움과 구별된다. 불안은 자동사적인 반면, 두려움은 타동사적이다. 그러나 라캉은 이러한 전통에 거스르며, 대신 불안은 “대상이 없지 않다”라고 단언한다. 왜? 이로써 라캉은 무엇을 얻는가? 표준적인 기준인 “대상이 있거나 없거나”는 두 개의 모순적이거나 상호배타적인 항들 사이에서의 단순한 선택을 제공하며, 이 두 항이 가능성의 장을 소진시킨다. 그 둘 사이에는 엄격한 경계가 있다. 하나나 다른 하나(대상이나 아니나)의 선택은 현상이 경계의 어느 편에 놓이는지를 결정한다. 프로이트는 이러한 경계가 두려움과 불안을 구분할 뿐만 아니라 과학적인 것과 이성을 비과학적인 것과 비이성적인 것으로부터 구분할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감지했던 것 같다. 그리고 프로이트는 결코 이를 원치 않았다. 그는 그의 과학인 정신분석이 비이성적 현상들에 대한 연구로 해석되기를 결코 원치 않았다. 심리의 작동은, 아무리 골치 아픈 것이라 해도, 과학의 울타리 바깥으로 제외되지 않았다. (...) 불안의 느낌은 강한 확실성의 느낌이며, 프로이트는 이에 대해 의문시해야 한다는, 그 느낌을 망상으로 특성화해야 한다는—즉 이 확실성을 근거 없는 것으로, 이성에 그 어떤 토대도 없는 것으로 기각해야 할—그 어떤 충동도 느끼지 못했다.

라캉의 “대상이 없지 않다”라는 공식은 프로이트와 동일한 관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 라캉이 불안에 대해 “대상이 없지 않다”라고 단언할 때, 사실상 그는 불안이 대상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 과소진술일 것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불안은 여하한 사실적 대상, 여하한 현실적 대상보다 우월한 확실성의 층위에 있는 대상과의 조우에 의해 재촉되기 때문이다.⁴⁾

논지에서 벗어나는 듯 보이지만, 나는 여기서 마지막 문장에 있는 저 “재촉하다”라는, “precipitate”라는 동사가 실로 흥미롭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그것이 어떤 독특한 작용, 독특한 관계를 포착하고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연상되는 것은 칸트이다. 칸트는 『순수이성비판』을 이렇게 시작한다.

어떤 방식으로 그리고 어떤 수단에 의해 언제나 인식이 대상들과 관계를 맺든지 간에, 그로써 인식이 직접적으로 대상들과 관계를 맺는 것은, 그리고 모든 사고가 수단으로 목표하는 것은 직관이다. 그런데 직관은 오로지 우리에게 대상이 주어질 때만 생기며, 다시금 그러나 이런 일은 적어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오로지 대상이 마음을 어떤 방식으로든 촉발함으로써만 가능하다.⁵⁾

철학사의 독자가 아니더라도, 철학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단지 지젝의 독자이기만 하더라도, 곧바로 여기에 걸려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칸트는 “지성적 직관”이라는 것을 배제하고 있다. 지성적 직관이란 “지각하는 것을 곧바로 창조하는 직관, 즉 무한한 신적 존재의 특권”이다.⁶⁾ 지젝은 예컨대 『부정적인 것과 함께 머물기』에서 지성적 직관을 “칸트에게서는 무조건적으로 금지된 단계”라고 하고 있다.⁷⁾ 『순수이성비판』을 시작하는 저 유명한 구절에 걸려 있는 것이 지성적 직관의 배제라면, 지성적 직관의 배제 그 자체에 걸려 있는 것은 무엇일까? 라캉적 충동과 관련하여 나는, 지금 충분히 해명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 두 가지가 걸려 있다고 본다. 우선 지젝의 지적처럼, 칸트에게서 초월적 주체의 유한성이 그의 자유와 초월적 자발성에 대한 제한이 아니라 그것의 긍정적 조건인 것처럼, 라캉적 불멸성은 인간 유한성의 지평 내부에서만 출현하는 것이다.⁸⁾ 앞 장에서 보았듯이, 이 라캉적 불멸성은 죽음충동에 다른아닌 것이다. 또한 칸트의 “촉발하다”라는 동사는 콕제의 “재촉하다”라는 또 다른 동사를 연상시킨다. 우리는 “대상으로부터의 재촉” 같은 것을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나는 여기에 충동의 대상에 관한 문제가 걸려 있다고 생각한다. 충동의 불멸성과 충동의 객관성, 이 두 가지가 지성적 직관의 배제에 걸려

있는 두 가지 문제이다.

다시 콕제의 인용문 자체로 돌아가 보자. 인용문에 따르면, 프로이트는 한편으로 불안에 대상이 없다고 보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은 망상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고,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프로이트는 자기모순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예리한 통찰이 느껴지는 바로 이곳이 비옥한 프로이트적 토양이다. 이곳에서 학문은, 과학은 그 이전과 이후를 갈라놓는 어떤 도약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 도약은 “대상”이라는 기본개념에서 어떤 전대미문의 반전과 발전이 이루어지는 도약이 될 것이다. 콕제가 “여하한 사실적 대상, 여하한 현실적 대상보다 우월한 확실성의 층위에 있는 대상”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 우리는 그것이 단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대상에 대한 언급일 뿐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알지 못했던 대상의 차원, 대상 그 자체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상 a ”를 그냥 “대상”이라고 쓸 수도 있어야 한다. 거기서 객관성의 새로운 심연이 열리고 있다.

충동 대상의 가변성에 관한 프로이트의 언급들에서 우리는 이와 같은 비옥한 토양을 발견한다. 콕제의 표현을 빌자면, 여기서 두 개의 모순적이거나 상호배타적인 항들 사이에서의 단순한 선택은, 모든 가능성을 소진시키는 바로서의 저 “대상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물음은 더 이상 기능하지 않는다. “충동은 본능과 달리 (생물학적) 목적성을 갖지 않으므로 특정한 대상이 아니라 다양한 대상에서 같은 만족을 얻을 수 있으며, 심지어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충족에 도달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대상의 개념에서 변화가 요구되고 있음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

“충동에는 대상이 없지 않다”는 명제는 홍준기가 제시하는 또 다른 중요한 명제, 즉 “욕망에는 대상이 없다”는 명제와 함께 이해되어야 한다. “정확히 말하면, 욕망에는 욕망의 원인이 있을 뿐 욕망의 대상은 없다.”⁹⁾ 물론 이 말은, 홍준기의 지적처럼, “일반적인 의미에서” 욕망의 대상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그런데 “욕망에는 대상이 없다”는 명제는 충동과 욕망에서 대상 a 가 작동하는 방식의 차이를 암시하고 있다. 나는 오늘 남은 시간을 욕망에서의 대상 a 를 다루는 데 이용할 것이다. 이를 다루기 위해서 우리는 욕망의 경제 안으로, 혹은 이데올로기적인 장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브루스 핑크의 말을 믿는다면 라캉적 대상, 대상 a 는 이미 적어도 열네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지젝은 이로도 충분치 않다는 듯이 “시차”라는 또 다른 이름을 부여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부정적인 것과 함께 머물기』를 꼼꼼하게 읽은 독자라면 그가 대상 a 를 또한 칸트의 초월적 대상과 등치시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독일에서 칸트로 박사 학위를 받은 한 지인에게 “초월적 대상”을 우선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물어보았다. 그는 그것을 우선은 “대상의 대상성 그 자체”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대상의 대상성 그 자체”라는 말에 대해서 다시금 동일한 물음을 던져볼 수 있다. 즉 바로 이 “대상의 대상성 그 자체”라는 말을 우선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대상을 바로 그 대상으로 만들어주는 무엇”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어떤 대상을 바로 그 대상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은 매우 오래된 물음이다. 플라톤은 이 물음에 “이デア”라고 답했다. 라캉이라면 “아”라고 답할 것이다. 지젝은 칸트가 그것을 “초월적 대상”이라고 불렀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이제 이러한 것을 이미 준비해놓고서 다음의 구절을 읽어보자.

유대성이라는 “초월적 대상”은 바로 “유대인을 유대인으로 만드는” 그리고 그의 실정적 속성들에서 우리가 헛되이 찾고 있는 저 난포착적 X이다. 이 순수 전환의 행위, 즉 실정적 특징들의 계열을 “유대인”이라는 기표로

통합하고 그로써 그것들을 은폐된 근거로서의 “유대성”을 드러내는 같은 수의 현시들로 변형시키는 “종합 행위”는 대상적 잉여의 “유대인 안에 있는 유대인보다 더한” 어떤 불가사의한 X의, 즉 초월적 대상의 출현을 초래한다.¹⁰⁾

여기서 지젝은 어떤 기표(“유대인”)로 지칭되는 대상(유대인)을 바로 그 대상으로 만드는 무엇(유대성)을 또한 “초월적 대상”이라고 지칭하고 있다. 물론 단지 그것만을 말한 것이 아니라, 좀더 많은 것을 말하고 있지만 말이다. 예컨대 그는 “유대인을 유대인으로 만드는”이라는 표현과 “유대인 안에 있는 유대인보다 더한”이라는 표현 또한 등치시키고 있다.

반유대주의 이데올로기라는 형태를 취하는 욕망의 경제에서 유대인을 유대인으로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물론 그것을 유대인의 실정적 속성들에서 찾는 것은 헛된 일이다. “유대인은 ‘우리처럼’ 생겼다. 그들을 구별해 내기란 쉽지 않다. 다시 말해 그들을 다른 이들과 구별해 주는 저 잉여, 저 난포착적 특징은 실정적 현실의 수준에서 쉽게 확인되지 않는다.”¹¹⁾

어떤 대상을 바로 그 대상으로 만드는 무엇을 간단히 “동일성 요소”라고, 혹은 “정체성 요소”라고 부르는 것은 어떨까? 영어로는 어느 쪽이든 “identity element”이겠지만 말이다. 나는 독자들과 마찬가지로 이 용어가 수학에서 사용되는 용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예컨대 덧셈의 경제와 관련해서 우리는 그것이 “0”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곱셈의 경제와 관련해서 그것이 “1”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렇다면 욕망과 관련해서 그것은 무엇일까? 나는 라캉이 이 마지막 물음과 관련하여 “a”라는 답을 내놓은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

“유대인”이라는 기표, 그리고 유대성 혹은 대상 a , 이것들은 실정적 대상을 초과하는 무엇이다. 라캉에게 기표와 대상 a 는 실정성을 초과한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영미의 분석철학 전통은 이 기표와 대상을 무화하려고, 환원시키려고 노력했다. 나는 그것을 “경험론의 철학적 열정”이라고 부르고만 싶다. 그들은 그곳에서 회열을 발견한다. 버클리에게도 그 회열이 있고 데이빗슨에게도 그 회열이 있다. 그곳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철학을 추동할 원동력을 찾는다. 그들은 그렇게 하면서 자신들이 학문을, 과학을 지탱하고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서 그들은 학문이 마땅히 다루어야 할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를, 즉 이름과 대상 그 자체를 놓치고 만다.

존 설과 같은 기술주의자들이 어떻게 (주인)기표를 환원하려고, 무화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상세한 논의를 우리는 『이데올로기의 숭고한 대상』 제3장에서 발견한다. 나는 독자들이 지젝의 논의를 읽어보기를 희망한다, 여기서 나는 오늘 기표를 다루지 않고 대상을 다룰 것이니까 말이다. 다른 한편 예컨대 길버트 라일 같은 철학자는 저 대상 a 를 환원하려고 했다.

옥스퍼드나 캠브리를 방문한 한 외국인이 처음으로 칼리지와 도서관과 운동장과 박물관과 과학부와 행정관 등을 안내받아 보게 되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묻는다. “하지만 대학교는 어디에 있지요? 나는 칼리지 멤버들이 어디에 거주하는지를 보았고 사무주임들이 어디서 일하는지를 보았고, 과학자들이 어디서 실험하는지를 보았고 그 여타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대학교 멤버들이 거주하고 일하는 대학교를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에게는 대학교라는 것이 또 다른 별도의 시설이 아니라는 것이, 그가 본 칼리지와 실험실과 사무실의 어떤 숨어 있는 상응물이 아니라는 것이 설명되어야 한다. 대학교는 단지 그가 이미 본 모든 것들이 조직되는 바로 그 방식이다. 그것들을 보고 그것들의 상호조화를 이해한다면 대학교를 본 것이다. 그의 잘못은 크라이스트 처치, 보들리언 도서관, 에쉬몰린 박물관과 대학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즉 “대학교”가 이 다른 단위들을 원소로 하는 집합의 추가적 원소를 나타내는 것인 양 말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순진하게 가정한 데

있다. 그는 대학교를 여타의 시설들이 속하는 범주와 동일한 범주에 잘못 할당했다.¹²⁾

물론 라일의 말대로 우리는 칼리지나 도서관 같은 대학교를 이루는 개별 시설들의 층위에서 대학교를 확인할 수는 없다. 대학교는 그것들과 같은 범주가 아니다. 라일은 그래서 저 외국인이 “범주오류”를 저지른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제 욕망의 경제로 들어가 보자. 흥미로운 한 가지 일치를 확인해놓고 말이다. 다시 말해서 크립키가 고정지시어의 작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금”과 “유니콘”이라는 “리비도적 함의가 물씬 풍기는” 대상들을 사용한 것에 지젝이 주목했던 것처럼¹³⁾ 우리도 라일이 대학교의 사례로서 하필이면 “옥스퍼드”와 “캠브리지”를 들었던 것에 주목해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정확히 욕망의 경제 내에서 저 가련한 외국인의 물음을 다음과 같이 정정하여 옥스퍼드의 안내인에게 되돌려 줄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칼리지 멤버들이 어디에 거주하는지를 보았고 사무주임들이 어디서 일하는지를 보았고, 과학자들이 어디서 실험하는지를 보았고 그 여타를 보았습니다. 별다른 것도 없더군요. 이게 다인가요? 옥스퍼드는 어디에 있지요?”

물론 이게 다가 아닐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옥스퍼드에서 옥스퍼드의 모든 실정적 속성들을 제하더라도 남는 것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 $A - A = 0$ ”을 또한 “ $A - A = a$ ”라고 쓸 수 있다. 그냥 커피가 아니라 “진짜” 커피를 원하는 사람은 커피 말고도 무엇을 더 원하는 것일까? 나는 그/녀가 커피와 더불어 커피 a 를 원한다고 말할 것이다. 혹은 커피와 더불어 그것의 이데아를 원한다고 말할 수도 있지 않을까?

“욕망에는 대상이 없다”라는 홍준기의 명제로 돌아와 보자. 앞서 언급했듯이 그는, 라캉을 따라서, “하지만 그림에도 ‘일반적 의미에서’ 욕망의 대상이라는 표현을 굳이 사용해서는 안 될 이유는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일반적 의미에서 욕망의 대상이란 무엇일까? 나는 “ $A = A + a$ ”라는 등식에서 등호의 왼쪽에 있는 것을 바로 그 일반적 의미에서의 욕망의 대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은 우리가 욕망하는 대상이다. 즉 그것은 “욕망한다”라는 타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는 대상이다. 하지만 그 대상들이 “일반적인 의미에서” 욕망의 대상들이라 하더라도, 우리 주변에 있는, 혹은 우리의 언어가 허용하는 일반적인 대상들이 모두 그러한 대상인 것은 아니다. 어떤 대상에서 우리의 욕망이 발생할 때 그 대상은 (일반적인 의미에서) 욕망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 대상에서 우리의 욕망이 발생하려면 대상 a , 즉 욕망의 원인이 작동하고 있어야 한다. 그것이 “ $A + a$ ”의 의미이다.

1) 프로이트, 『정신분석학의 근본 개념』, 108쪽.

2) 홍준기,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남자의 성, 여자의 성』, 아난케, 2005, 20쪽.

3) 같은 책, 27쪽 참조.

4) Joan Copjec, “May ’68, The Emotional Month”, in *Lacan: The Silent Partners*, ed. Slavoj Žižek, London and New York, 2006, pp. 98-99.

5) 칸트, 『순수이성비판 1』, 백종현 옮김, 아카넷, 2006, 239쪽.

6) 슬라보예 지젝, 『까다로운 주체』, 이성민 옮김, 도서출판b, 286쪽.

7) 슬라보예 지젝, 『부정적인 것과 함께 머물기』, 이성민 옮김, 도서출판b, 39쪽.

8) 슬라보예 지젝, 『까다로운 주체』, 286쪽.

9) 홍준기,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남자의 성, 여자의 성』, 38쪽.

10) 슬라보예 지젝, 『부정적인 것과 함께 머물기』, 293쪽.

11) 슬라보예 지젝, 『이데올로기라는 숭고한 대상』, 이수련 옮김, 인간사랑, 2002, 159쪽.

12) Gilbert Ryle, *The Concept of Mind*, p. 16.

13) 슬라보예 지젝, 『이데올로기라는 숭고한 대상』, 163쪽.